

●광주시향오티움v ‘Modern’

현대음악 대표 작곡가 베베른부터 스트라빈스키, 슈니트케까지 20세기 모던주의 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꾸며진다. 광주시립교향악단 기획 오티움콘서트 마지막 무대 ‘Modern’이 다음달 11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30분 2차례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 오른다.



시향

20세기 ‘모던주의’ 선율에 흠뻑 빠져볼까

내달 11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서 베베른·스트라빈스키·슈니트케 ‘다체’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김영옥 협연

올해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오티움콘서트인 이날 공연에서는 20세기 현대음악의 매력을 선보이는 다채로운 곡들이 준비됐다.

공연은 광주시향 부지휘자 김영언의 지휘와 해설로 진행된다. 여기에 국내외 유명 교향악단과 협연으로 솔리스트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동시에 노부스 콰르텟 바이올린 연주자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 중인 김재영과 김영옥이 함께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베베른 오케스트라 곡을 시작으로 스트라빈스키, 슈니트케 작품이 차례로 연주된다.

곡의 배경과 곡해설, 오케스트라가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악기 구성을 통해 20세기 음악의 다양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첫 무대는 짧지만 강한 음악으로 시작해 정교한 구성과 응축된 작곡법을 보여주는 ‘베베른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5개의 소품 op. 10’로 막을 올린다.

베베른의 초기 작품인 ‘관현악을 위한 5개의 소품’은 5장까지의 연주 시간이 약 5분 미만의 곡으로, 주제를 전개할 필요 없이 한 번만 연주하면 된다는 작곡가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 클라리넷, 트럼펫, 트롬본, 첼레스타, 하프 등 다양한 악기가 등장하며 곡마다 편성이 달라져 악기 소리에 귀 기울이며 듣기 좋은 작품이다.

이어 관악기 구성으로 작곡된 ‘스트라빈스키의 관악기를 위한 교향곡’이 연주된다.

메마르고 거칠지만 때로는 장중한 울림을 구현한 작품으로 현악기 편성을 제외한 관악합주 편성의 단일 악장 교향곡이다.

스트라빈스키는 유명인을 추모하는 작품을 많이 썼다. 이 곡은 작곡가 드뷔시를 추모하며 현정으로 작곡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공연의 대미는 광주시향과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김영옥이 나서 ‘슈니트케 바이올린 2개를 위한 콘체르토 그로소 1번’으로 장식한다.

현악기와 하프시코드 그리고 두 개의 바이올린(독주) 연주가 돋보인다. 바로크적인 요소와 20세기적인 기법이 융합된 고유한 특성의 곡이다.

지휘자의 해설과 함께 연주되는 광주시향의 오티움 콘서트5 ‘Modern’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입장권은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관람은 초등학생부터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김재영



김영옥

ACC 어린이문화원, 콘텐츠·관람환경 개편

첨단미디어 등 적용 내달 17일 재개관

2015년 9월 개관 이후 600만 여명이 방문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이 새로운 콘텐츠와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ACC 어린이문화원 콘텐츠 및 관람환경 개편을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임시 휴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휴관기간 동안 ACC 어린이문화원은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 변화에 대응한 어린이 문화예술 콘텐츠를 구축하는 동시에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기존 어린이도서관은 첨단 미디어 기술을 적용한 ‘와글와글 어린이도서관’으로 변모해 어린이들이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어린이체험관은 ‘지식과 문명’ 전시 콘텐츠와 연계한 메타버스 ‘아시아로 떠나는 문화 여행’, 아시아 그림책 체험전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등 콘텐츠를 새롭게 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공간 개선과 휴게·편의시설을 확충한다.

ACC 어린이문화원은 다음달 17일 재개관할 예정이며, 어린이 창작실체험실은 휴관 없이 정상 운영한다.

/최명진 기자

제30회 한국출판 평론상 김선기 전남도립대 교수

내달 12일 예술가의 집서 시상식

제30회 한국출판 평론상 수상자에 문학평론가로 활동 중인 전남도립대 교양학부 김선기 강의 교수(63·사진)가 선정됐다.

26일 한국출판연구소·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은 제30회 한국출판 평론상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교수의 평론 ‘한강 신드롬과 한국 출판산업의 상관성’을 올해의 출판 평론상으로 선정했다.

수상작 ‘한강 신드롬 ...’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되살아난 한국 출판계의 어제와 오늘을 냉철하게 분석·진단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젊은이들 사이 돌풍을 일으킨 ‘한강 신드롬’이 K-문학을 넘어 K-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밀도 있게 살피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평론은 한국 출판산업의 문제점과 현안을 냉철히 분석·진단하고 미래의 발전 방안까지 제시하는 등 학계



의 주목을 받을 만한 수작”이라면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함께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했다.

전남대학교 국문학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 교수는 광주지역 일간지 문화부장과 논설실장을 지낸 문화·전문 기자 출신으로, 강진군 시문학관과 기념관 관장을 역임했다.

2021년 시 전문지 ‘시와사람’ 문학평론 당선으로 평론가의 길에 들어선 그는 ‘문학 공간의 미학’ 등 5편의 저서를 냈다. 현재 전남도립대 교양학부 강의 교수와 시 전문지 ‘시와문화’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제30회 한국출판 평론상 시상식은 다음달 12일 오후 3시 서울 동송동 마로니에공원 내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다./최명진 기자

삶의 희로애락, 여기 다 담겼네~

오늘 광주시립창극단 기획공연
‘판소리 감상회’ 올 마지막 무대

광주시립창극단 2024 기획공연 ‘판소리 감상회’ 올해 마지막 무대가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소리꾼의 소리와 고수의 북장단을 통해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판소리 감상회에서는 창극단 창작부 단원들의 소리로 판소리 다섯 바탕 눈대목을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이은비(창악부 상임단원) 소리꾼의 흥보가로 시작된다. 흥보가 중 첫째 박타는 대목은 놀보에게 쫓겨난 흥보가 재비 다리를 고쳐주고 재비가 물었다 준 박씨를 심었더니 박이 열려 그 속에서 온갖 보물이 나오는 이야기다. 정확한 사실과 부침새로 짜임새 있게 구성된 소리에 소리꾼의 재담이 더해져 특유의 구수한 입담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두 번째 무대는 김연옥(창악부 상임단원) 소리꾼의 춘향가 중 이별가 대목이다. 대부분 극중 인물의 슬픔을 표현하는 계면



조로 짜여 있으며, 춘향의 슬픈 심정이 애절하게 드러난다. ‘춘향가의 눈대목’이라 불릴 만큼 청중들에게 인기를 끄는 대목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대는 장영환(창악부 상임단원) 소리꾼이 선사하는 심청가 중 심봉사가 눈 뜨는 대목이다. 황후가 된 심청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맹인잔치를 열고, 그 소식을 들은 심봉사가 잔치에 참여해 딸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천우신조로 눈을 뜨는 내용이다.

이날 공연은 도경환(기악부 상임단원) 고수의 북장단과 함께 한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윤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